즈모토 모토사다(頭本元貞)에 있어서 발신형(発信型) 영어 미디어의 궤적

마츠나가 토모코
(松永 智子)

1. 머리말

일본 문명을 블랙홀에 비유한 자는 일찍이 탈 공업화 사회에 '정보산업 사회'라는 이름을 붙인 문화인류학자 우매사오 타다오(梅棹忠夫)이었다. 맹렬한 에너지로 외부의 것을 흡수하는 블랙홀과 같은 일본은 외국의 정보를 입수하는 데에는 열심이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를 외국에 제공하는 데에는 지극히 태만했으며, 오히려 경계하는 듯한 면조차 있었다. 이러한 일본문명은 "수신 기능은 좋지만 발신 기능이 꽤 낮은 기계"와 같은 것으로, 우매사오는 '정보산업 시대'에서는 수신기 型 일본 문명을 반성하고, 정보 발신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우메사오, 1995). 1980년대에 있어서의 우매사오의 논의는 인터넷의 보급 및 글로벌 사회의 진전과 함께 현재 더욱 더 현실적인 문제로 생각되고 있다.

또 정보발신의 문제는 언어 문제와 연결된다. 우매사오는 정보발신의 합리성을 논거로 일본어를 로마자 표기하는 것을 주장했는데(우메사오, 2004), 사람들의 관심은 국제어로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영어에 있었다. 영어 교육에서도 '발신'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특히 주목의 대상이다. 언어 사회학자인 스즈키 타카오(鈴木孝夫, 1999)는 일본의 영어 교육을 '수신'으로부터 '발신'으로 전환을 주장한다. 스즈키가 "외국어 교육의 주목적은 이제 수입/소화가 아니고, 일본의 발신으로 180도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해 온 것은 근대 일본의 "상대방을 이해하고, 가능한 한 동화하려고 하는, 지극히 내향적인 자기 개조 형의 외국어 교육"에 일본이 여전히 정보 발신에 소극적인 '원흉'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스즈키, 2007).

그러나, 미디어의 역사를 살펴보면 '영어'와 '정보 발신'의 결합은 글로벌화의 산물이 아니다. 1897년에 창간된 일본인이 발행한 영자 신문 *Japan Times*는 일본 거류 외국인의 신문에 대항하여 영어로 '일본의 발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즉, 대외 선전이다. 창간 자 즈모토 모토사다(頭本元貞:1863~1943)는 일본어가 통용하는 범위가 한정적인 것을 감수하여, 그래서 영어로 "진정한 일본 상(象)을 똑바로 세계에 전달한다"고 신문의 존재 의의를 주장했다. 거기에는 대외적인 정체성의 주장, 내셔널리즘에 의거한 영어의 역사가 존재한다.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본연의 모습이 모색되는 현대에 있어서, "수신기 형 일본"의 발신의 역사를 조명하고 싶다.

본고에서는 *Japan Times* 창간 자 즈모토 모토사다를 주목하여, 그가 주재한 영어 미디어의 변천을 살펴 보는 것으로 메이지(明治), 타이쇼(大正), 쇼와(昭和)를 살아 간 즈모토가 어떠한 문맥에서 영어에 의한 발신을 주목했는지를 분명히 한다. '발신형 영어'란 넓은 의미로 영어에 의한 자기표현, 정보 발신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대외 선전이란 협의의 '발신'으로 해석하여 주모토의 활동을 고찰한다. 즈모토는 국책

(國策) 저널리스트로서 대외 선전에 노력하는 한편으로, 학생을 의한 영자 신문을 발간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말 혹은 글로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영어를 공부하라고 주장하는 등, 영어 교육에게도 관여하고 '발신'을 중시했었다. 스스로가 발신자이었던 즈모토가 학생에게도 '발신'을 위한 영어를 요구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현대 일본의 "수신으로부터 발신으로"라고 하는 역사관을 재검토하는 계기로서 즈모토의 사상과 행동을 살펴 보고 싶다.

즈모토 모토사다에 대해서는 "향토의 영학(英学)의 선각자"로서 인물 사를 정리한 가와구치 야스코(川口康子, 1986:1987)의 연구나, 즈모토가 한국에서 발간한 영자 신문*Seoul Press*의 프로파간다를 논한 이수경 · 박인식(2008)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즈모토의 대외적인 선전 활동과 대내적인 영어교육 사업을 나누어서 논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잇는 즈모토의 사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즈모토의 사상이나 정치적 네트워크에 관해서는 태평양 문제 조사회(太平洋問題調査会)에서의 발언을 중심으로 즈모토의 사상적 입장을 검토한 시로야마 에이코(白山映子, 2008)의 상세한 연구가 있다. "미디어 전략에 종사했다고는 해도 즈모토를 단순한 우익적 국가주의자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시로야마의 주장에 대해서, 본고에서는 더욱 깊은 고찰을 한다.

제 1 장에서는 즈모토가 창간 한 영자 신문 *Japan Times*를 러 · 일 전쟁 전후에 표면화 된 영어에 의한 정보 발신의 역사 속에 위치시키고, 이 신문이 재류 외국인에 대한 선전과 내지잡거(內地雜居)를 앞둔 일본인에 대한 영어 교육 사업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려 한다. 제2장에서는 타이쇼기(大正期)에 영어 교육을 확립시킨 오카쿠라 요시자부로(岡倉由三郎)와 비교하면서, '발신'을 중시한 즈모토의 영어 교육론과 실천에 대해 논한다. 제3장에서는 대외적인 활동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즈모토의 사상적 입장을 검토하고, 영문 잡지 "World Digest"에 귀결하는 즈모토의 '발신 형 영어'가 지향한 사상과 현실에 대해 개관한다.

2. 발신형 영어의 생성

1) 즈모토 모토사다와 영어 학의 시대

"일본의 사상을 외국에게 전달하여 외국의 사상을 일본에 보급하는 중매가 되고 싶습니다." 전쟁 전에 국제연맹 사무차장을 맡은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稲造)가 도쿄대학교 입학 시험에서 말했다고 하는 '태평양의 다리'는 너무 유명하다. 이 말은 "영어를 공부해서 어떻게 하냐"고 묻는 면접관 토야마 마사카즈(外山正一) 교수에 대한 답이었다. 니토베에는 삿포로 농업학교 재학 시절, 그와 뜻을 같이 한 동지가 있었는데 그 인물이 후의 *Japan Times* 창간자가 된 즈모토 모토사다이다. 즈모토는 자기의 장래를 고민해 갈등하던 니토베와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자신의 사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번민(煩悶)했었다. 그러한 그가 생각해 낸 결론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일본은 바다의 나라이며, 일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에 일본을 이해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 인가하면, 일본은 서구 국가들에 안 통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나라가 열강에 껴 세계 무대에 나서기 위해서는 영어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략) 영자 신문을 발행하고 일본의 국정(國情)을 외국에 소개하는 것을 나의 일생의 일로 하기로 결심했다". 즉, 즈모토가 말하는 '영문보국(英文報

國)'의 사명(미션)이다. 니토베와 같이 즈모토에게는 영어와 '일본의 발신'이 무리 없이 결합되고 있었다. 그러면 그들이 교육을 받은 메이지 10년대(1880년대)의 일본에 있어서 '영어'란 어떤 언어이었을까.

분큐(文久) 2년(1863년) 1월 23일, 즈모토 야스고로(頭本安五郎)의 장남으로서 호우키노쿠니(伯耆国) 히노(日野)에 태어난 즈모토 모토사다는 10살 때 처음으로 영어에 접한다. 게이오기죽(應応義塾)에서 공부한 향토의 명사, 오가타 히로요시(緒方弘義)는 귀향했을 때, 그를 찾아온 즈모토 소년의 우산에 "톳토리현 히노군 쿠로사카촌 즈모토 모토타로우"라고 영문으로 싸인 했다. 출세한 향토 명사의 도쿄 선물은 영어라고 하는 '문명어(文明語)'이었다. 문명개화에 끓는 메이지의 일본에서, 영어는 각별히 빛나는 것이었다. 즈모토는 태어나서 처음에 본 영어를 일본어 문장과 비교하여 양자간 문자수의 차이에 흥미를 가졌다. 즈모토는 오가타를 따라 알파벳을 배워서 금새 영어에 숙달되었다. 때는 메이지 5년, 미국 대사 모리 아리노리(森有礼)는 "英語爲邦語論"을 주창했었다.

즈모토는 더욱 더 영어에 대한 관심이 강해져서 12세에 톳토리(鳥取) 중학교에서, 14세에 나고야(名古屋) 중학교로 보다 좋은 학습 환경을 찾아가면서 "영어를 본격적으로 학습"하여 도쿄대학 예비문을 거쳐, 메이지 13년(1880) 삿포로 농업학교에 입학한다. 4 기생이 된 즈모토의 동기로는 시가 시게타카(志賀重昂), 선배로는2기생의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稲造)와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가 있었다. 이 학교의 교사는 고용 외국인이며, 공용어는 영어였다.

즈모토들이 학생시절을 보낸 메이지 10년대부터 20년대까지의 일본의 고등교육 기관에서는 고용 외국인이 그들의 언어로 강의를 실시하고 있어, 외국어 학습은 자명한 의무였다. 야마구치 마코토(山口誠, 2001)에 의하면, 특히 메이지 7 년(1874) 이후, 관립 고등교육 기관에서는 의학을 제외해서, 독일어나 프랑스어도 아니고 영어가 필수어로 선정되어, 영어를 못하면 학문 그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영어'는 구미로부터 수입한 학술서를 읽고, 근대적인 지식을 '수신'하기 위한 언어였다. 일본의 앞날을 떠맡은 엘리트들이 아예 영어로 공부하여, '수신'한 지식의 번역에 힘썼다. 에도막부(江戸幕府) 말기부터 메이지 초기의 일본에 있어서 '영어'는 영국의 학문을 의미하는 '영학(英學)'으로서 수용되고 있었다.

원래 개척사(開拓使)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여 개교된 삿포로 농업학교가 일본의 영어 역사상 특이한 존재가 된 것도 이 '영학' 시대의 혜택에 다름이 아니다. 그러나 니토베 이나조, 우치무라 간조, 즈모토 등 많은 영문의 대가가 자란 것은 영어 영문학의 수업수가 많고, 교사의 대부분이 미국인이었던 4 기생까지였다고 한다. 그리고 영어를 통한 '수신' 열정이 만연하던 시대에, 자신의 사상을 '발신'할 것을 시야에 두고 영어에 매진한 것이 삿포로 농업학교 출신의 이들 영문 대가들이었다. 영어에 능숙한 삿포로 농업학교의 학생은 세계 정세를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영어로 쓰여진 일본론이나 일본인론을 접하게 된다. 마츠키 히로시(松木博, 1998)는 자기들의 국가관과 다른 문화로서 파악 된 일본과의 격차에 직면한 것이 그들을 영어에 의한 '발신'으로 향하게 했다고 지적한다.

2) *Japan Times* 창간

철저한 '수신'의 시대에 싹튼 영학생(英学生)들의 '발신'의 뜻은 메이지 30년을 지

났을 무렵에 실현되기 시작한다. 즈모토의 *Japan Times* 창간이 메이지 30 (1897) 년이었고, 니토베의 『*Bushido*』 출판이 1900년이었다. 그리고 중일 · 러일 전쟁을 경험한 일본에서는 '발신형 영어' 에 대한 열정은 이제 일부 영문 가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정부와 민간기업, 미디어나 영어 교육자로부터 일반 사람들 등, 다양한 사회적 주체에 퍼지고 있었다. 내셔널리즘의 고양을 따라 수신을 위한 '영학' 도 공용어로의 '영어' 도 아닌, 일본을 이야기하기 위한 영어가 논의되었다.

우선 즈모토의 뜻이 국가 사업으로서 결실된 *Japan Times* 창간에 대해 고찰한다. 영어 신문 창간의 큰 뜻을 가슴에, 삿포로를 뒤로 한 즈모토는 요코하마의 *Japan Mail* 사에 입사했다. 1885년 당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이끄는 초대 내각이 여러 제도의 개혁에 임하고 있었으며, 그 관제(官制)의 개혁에 대해 즈모토는 건필을 발휘했다. 이러한 즈모토의 작업이 선전/홍보에 의욕적인 "이토공(伊藤公)에서 인정 받는 단서"가 되었다. 즈모토는 이토의 직접적인 요청으로 기자직을 계속하면서 이토의 비서관을 맡아서, 대일본제국 헌법 작성에 통역으로서 종사하는 등 뛰어난 영어실력으로 이토의 기대에 부응했다.

1896년 가을, 즈모토는 이토 내각의 총사직에 따라 비서관을 사직하고, 평소부터 꿈꾸고 있던 영자 신문 간행에 일보를 내디뎠다. 즈모토 청운의 뜻은 이토의 지대한 환영을 받았다. 구미 사회를 시찰하여 정치에 대한 공중의 의견, 그리고 신문이라고 하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직시한 이토 히로부미는 조약 개정 실현에는 미디어를 활용해, 일본을 열강으로서 인정하는 서구 사회의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Japan Times* 발간 당시, 요코하마나 코베 등 외국인 거류지에서 발간되어 있는 외국어 신문은 그들의 이해(利害)를 반영하여 불평등 조약의 존속이나 일본의 후진성을 주장한 것이 많았다. 그리고 상당한 부수가 구미 국가들에게도 송부된 것으로 인해 일본에 불리한 대일 이미지의 정보원이 되고 있었다. 정부는 그러한 외국어 신문에 대항하기 위해 1888년에는 *Japan Mail*을 매수하여 어용(御用) 신문화 하는 등의 "외국 신문 조종(操縱)"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절망된 것은 독자적으로 정부 계 외국어 신문을 발행하는 것이었다. 즈모토의 뜻은 그만의 것이 아니고 이제 관민 일체의 국책 프로젝트화 되고 있었다. 이토가 여비를 조달해, 즈모토는 신문 경영 시찰을 위해 구미에 파견되었다.

구미에서 일본의 실제 상황과 서양인들의 일본 인식에 격차가 있는 것을 통감한 즈모토는 다음 해 1월에 귀국하여 신문사 창설에 분주한다. 그리고 1897년 3월 22일, 야마다 수에지(山田季治)를 사장으로 하여 주필 즈모토 모토사다, 조필 다케노부 요시타로(武信由太郎)로 영자 신문*Japan Times*는 창간 되었다. 창간호의 사설 "Our Raison d'etre"에는 즈모토의 이름으로 "일본인의 의사 감정을 똑바로 표명하는 것이 *Japan Times* 창간 목적이다"라고 그 존재 이유가 기재되었다. 일본의 국정을 해외에 알린다고 하는 사명은 여기에 표현되어, 후의 즈모토의 활동에 투영된다. 사설에서는 일본을 영어로 '발신' 하는 것이 서양인과 일본인과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서로 접근하기 위한 '다리' 역할이 된다고 하는 즈모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2년 후에 內地雜居가 실시되면, 새롭게 일본 사회에서 살게 되는 서양인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 "언어의 장벽을 넘는다"는 것은 일본인이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했다. 주필 즈모토는 사설을 통해 일본을 소개하는데 노력하였다.

메이지 30년 이후는 전술한 『Bushido』를 비롯해,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의 『The Book of Tea』(1906) 등, 영어로 된 일본 문화론이 구미에서 연달아 출판되었다. 서양

적 교양을 갖추어 동시에 동양적 이상(理想)을 주창한 그들의 '발신'은 일본에 관심을 가진 서양 국가들의 요구에 응한 것이며, 국제주의에 근거한 일본의 문화적 · 정신적 정체성의 주장이었다.

변화는 학생을 둘러싼 '영어'에서도 엿볼 수 있다. 1908년에 "사상상의 영일 동맹"을 내걸어 창간 된 영어 잡지『영어의 일본(The Nippon)』은 창간호에서 "서양 문화의 옷을 입은 진짜 일본인이 되고 싶다"라고 선언하여, '기미가요(君が代)'나 '일본 해 해전(日本海海戦)의 노래'를 영어로 번역해서 소개하는 등, 일본 문화를 강조한 '영어'를 전개하며 갔다. 이러한 잡지는 메이지 20년대의 '영학'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도 '발신'은 새로운 테제가 되고 있었다. 1909년, 가고시마(鹿児島) 현립 카와우치 중학교의 영어 교사인 나가오카 히로무(長岡擴)는 잡지『영어 교수』에 사상 '수출' 시대의 영어 교육론을 전개하고 있다. "30년 전의 일본은 단지 외국의 지식을 흡수하는 데에 급급하고 있었지만, 향후의 일본은 서양 문명의 성과를 수입함과 동시에 우리들의 사상을 수출해야 할 시대이다. 귀와 눈을 움직일 뿐만이 아니라 입과 손으로 국제 경쟁의 자리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와서 말할 필요도 없다(밑줄은 인용자)". 100년 전에 '영어'는 '발신'에의 전환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러일 전쟁 시절에 싹튼 영어에 의한 '발신'이란 발상은 메이지 유신 이후의 '수신'에 의한 근대화 달성이라고 하는 '성공'에 대한 자부심을 기초로 하여, 이제는 그 흐름을 균등화 하든지, 혹은 기회만 있으면 역전시키려는 내셔널리즘의 발로가 되었다. 거기서 공유된 것은 이야기할 만한 '일본'이었다. 근대화가 진전하고 성숙한 '일본'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는 '내부로부터의 욕구'와 청일 · 러일 전쟁에 승리하여 새롭게 대륙 진출의 모습이 보이는 극동의 신흥국 Japan을 알고 싶다고 하는 '밖으로부터의 요구'를 원동력으로, 영어는 '발신' 언어로서 변용하고 있었다. *Japan Times* 창간호는 '국운(國運) 진척의 하나의 현상'으로 환영되었다.

즈모토가 뜻을 완수한 것은 국가의 대외 선전으로서의 '발신형 영어' 사업에 종사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지는 일본에서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대외 선전과는 다른, 대내적인 효과도 상정되어 있었다.

3) 교육 미디어로서의 영자 신문

"서양인에 대해서 진정한 일본상을 전한다"는 것을 사명으로 한 *Japan Times*에는 또 하나의 "Raison d'etre" 즉, 일본인 독자에 대한 영어 학습 교재로써의 존재 의의가 있었다.

메이지 30년 3월 2일자의 지지신보(時事新報)에는 *Japan Times* 창간의 광고 기사가 일본어로 게재되어 있으며, 어떠한 일본인 독자를 대상으로 했는지 고찰 가능하다. 기사에 의하면, 본지는 일본이나 극동에 관한 정치적 · 경제적 사건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도하기 위해, "정치가, 사업가, 제조가"나 "외국의 사정에 능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신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넓이 세계 각국의 클럽, 호텔, 상업 회의소, 학교 등에 배포"하는 것으로 "외국무역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유일한 광고 기관"이며, "학식 경험이 많은 외국 기자를 고용해 원고 수식(修飾)과 교정의 업무를 맡겨", "영어 영문을 연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한 필독 영자 신문이라고 되어 있다.

실제로 본지는 영어 교육 관계자를 경제적으로 우대했다. 일본 국내에서는 누구든

우편 요금이 무료가 되어, 게다가 교육기관이나 학생, 교육 관계자나 종교 관계자에게는 구독료를 2 할 할인했다. 즈모토는 창간 당초의 사설로 일본인 독자가 "북쪽은 홋카이도, 남쪽은 대만까지" 전국에 퍼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해마다 증가한다고 해도 신문 경영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영자 신문사가 영어 literacy가 있는 일본인의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으로, 본지가 창간 된 1897년 당시, 영자 신문 구독을 통해 영어 실력을 높이고 싶다는 독자 측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후쿠하라 린타로(福原麟太郎, 1958)는 청일 전쟁으로부터 러일 전쟁에 걸친 10년간을 "'영학'의 황금시대"라고 한다. "사람들은 기꺼이 영어를 배워, 영어를 신뢰하고 있었다". 비교적 지식인 독자의 비율이 높은『萬朝報』나『國民新聞』뿐만이 아니라『河北新報』와 같은 지역 신문까지도 영문 란을 마련하고 있었다. 영문 란이 없는 신문에게도 "영문란의 결여함은 유감스럽다. 가능하면 새롭게 그것을 설치하기를"(『大阪朝日新聞』, 1899. 8.13)이라고 하는 투서가 있을 정도로 세상의 영어 熱은 고조되어 있었으며 *Japan Times*는 그러한 수요에 응하려고 했다. 현재의 *Japan Times*도 독자의 반수는 일본인이지만, 일본어 사용자와 비사용자의 양쪽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 구조는 창간 당시부터 이미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지가 일본인을 독자 대상으로 한 것은 단순한 경영상의 문제 만이 아니었다. 內地雜居에 의한 서양인과의 자유 경쟁에 일본인이 견딜 만한 영어 실력을 함양한다고 하는 사회적 사명을 띠고 있었다. 이영숙(1996)에 의하면, 외국인에게 자유로운 국내 거주와 이동의 권리를 인정하는 이 內地雜居는, 법권・세권(稅權)의 회복이라고 하는 문제 이상으로 일반 사회에 반향을 불러일으켜, 때로는 과잉 하다고 할 정도로 심리적 저항을 일으키게 했다. 요코야마 겐노스케(横山源之助)는『내지잡거 후의 일본』(1899) 에서 內地雜居는 "서양인과의 평화시"의 "전쟁"이라고 논하고 있다. 당시의 국제 관계나 일본의 언어 환경을 감안하면, 자본이나 노동, 또 문화에 대해 경쟁 상대가 된 서양인과의 교섭 언어란 일본어가 될 리는 없다. 그들은 당연히 서양어로 공격해 온다. 그렇다면 그들과의 '전쟁'은 영어 literacy의 유무에 좌우되어, 영어 학습은 지극히 중요한 '사명'이었던 것이다. *Japan Times* 창간의 다음 해, 동지(同紙)가 발간한 학생용 월간 영문 잡지『The Rising Generation(청년)』(후에『영어 청년』으로 개칭)은 창간호에서 "內地雜居의 결과, 일본인이 구미인의 경제적 문화적 식민지화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영어를 배워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일방적인 서양 문화 '수신'을 위한 영어가 아니고, 스스로가 영어를 '발신'하는 주체가 될 것을 지향하는 *Japan Times*는 학습자에 대해서 "we" = "우리 일본인"이라고 하는 일인칭으로 말하는 영문 텍스트를 제공한 것이다. 본지는 이런 점에서 다른 외국어 신문과 크게 차이가 났다.

*Japan Times*는 대외적인 '일본 발신'을 주목적으로 창간 되었지만, 그 기능은 외국인에 대한 정보발신 만이 아니고, 일본인에도 해외의 정보를 제공하여 국제 감각을 함양시킨다고 하는 쌍방향성을 지니고 있었다. 사실 본지는『時事新報』와 함께 다른 신문사에 앞서서 영국의 통신사인 로이터와 계약을 맺어, 해외 정보를 충실 시키는 데에 관에서 다른 신문을 능가하고 있었다. '다리 역할'로서의 영자 신문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서양인과 일본인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논의 가능한 언어 공간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 1 장에서는 '영학'의 황금시대인 메이지 중반, 청일・러일 전쟁을 거쳐 국제사회

에 대두하기 시작한 일본의 내적인 욕구와 외적인 요구에 의해 영어에 의한 대외 발신이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에 의해서 지향된 것을 고찰했다. 이러한 시대배경에서 화려하게 등장한 *Japan Times*이지만, 그 후 본지는 뜻밖에 확대되지 않았다.

2. 영어 교육의 탄생

1) '영학'으로부터 '영문학'으로

*Japan Times*창간 그 당시의 영어에 의한 일본 발신이란 관심의 고조와는 역행하듯이, 문부성 주도의 학교 교육에서는 "교육의 국어주의화(国語主義化)"가 추진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영어의 역할이 후퇴하고, 과목으로서의 영어 교육이 모색되기 시작되었다. 소수의 엘리트가 "영어로 배우는" '영학'의 시대는 지나가고, 많은 국민이 "영어를 배우는" 영어교육의 시대가 도래했다. 근대 일본의 영어 사를 개설(概説)한 사이토 요시후미(斎藤兆史, 2007)는 메이지 후반의 영어 변화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교육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교육 담당자는 고용 외국인으로부터 일본인 교사로 교체하고 있었다. 영일 동맹이 체결된 메이지 35년, 라후가디오 하안(Patrick Lafcadio Hearn)이 도쿄대학을 떠나서 영국 유학에서 귀국 한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가 교단에 올라가게 되었다. 늦어도 메이지 30년대 말에는 영어를 불문하는 교육환경이 정비되어, 고등교육의 조건으로써 영어를 배운다는 영어 학습의 목적은 후퇴했다. 일본어로 강의하는 일본인 강사들이 증가해, 양질의 번역서나 일본어 학술서도 점차 많아졌다. 게다가 이어지는 10여 년 동안에는 학교수가 두 배가 되어 중등 및 고등교육 시스템이 성숙되면서 일본어를 교수 언어로 하는 고등교육이 급속히 퍼져 갔다. 일부 엘리트가 아예 영어로 고등교육을 받은 메이지 초기와 달리, 영어는 학습·연구의 대상으로서 객체화 되었다. 그리고 이전의 '영학'은 중등 교육과정에서는 영어 교과목이 되었으며,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영어·영문학 연구로 전문 분화 되었다. 학습자의 증가는 영어의 산업화를 가져왔지만, 그것은 영어가 실학적 요소를 잃어버리고 학력 선발의 기준이 되어 많은 국민이 수험을 위한 영어학습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했었다. 즉, 조약 개정과 內地雜居의 실시는 *Japan Times*가 기대한 만큼 실용 영어 교육의 촉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영어의 지반 침하는 메이지 말기에 결정적이 되어, 영어 교육 목적에 대한 재검토는 영어 교육자들의 사활 문제가 되고 있었다. 메이지 44년에 두 번째 조약 개정이 실현되었을 때, 영어는 이미 이물(異物)이 되기 시작했었다. 그런데, 영문자 신문을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 영어 리터러시를 가지는 일본인은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어로부터의 이륙(離陸)"은 메이지 이래 문부성이 주진한 교육 정책의 '과실'이다. 학제(學制) 발포 후 이듬 해에 추가된 조문에는 "외국인 교사가 가르치는" 고등교육은 앞으로 "일본어로 일본인이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문부성은 일본어로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국어의 정비와 인재 육성을 서둘렀다. 외국어에 의한 교육을 재빨리 탈피해야 하는 "타협"이었다는 것이다.

1893년, 이노우에 코와시(井上毅) 문부대신은 중학교의 교육 개혁에 착수했다. 그때까지 중학교 교육의 큰 부담이 되어 있던 제2 외국어의 폐지로 외국어 교육의 합리화, 국어한문(國語漢文)의 시간 수를 증가시키는 국어 국문 교육의 중점화가 그 중점이었다. 이노우에 문부대신은 그 해에 열린 '제일 고등/중학 국어 강습회'에서 오늘 세계의

문명국에서는 "자국의 언어 문장을 존중하고, 이것을 보통 교육의 맨 앞에 두고, 또 해당 언어/문장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할당하여 학생을 교육"하고 있지만, 일본의 "교육상의 국어 국문의 상황은 아직 유감"스러운 상태이다 라고 연설하였으며, 시급한 국어 교육 발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교육의 국어주의화(国語主義化)는 학생의 영어력 저하라고 하는 부작용을 수반했다가, 나쓰메 소세키(1911)는 "일본의 내셔널리티는 누가 봐도 중요하다. 영어의 지식 따위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여, 영어력 저하 문제는 "일본의 교육이 정당한 순서로 발달한 결과이다"라고 술회했다.

"영학의 황금시대"는 '국어' 이념의 생성기와 거의 겹친다. 즉, 內地雜居의 준비로서 영자 신문 *Japan Times*가 실천적 영어 능력의 함양을 재촉한 것에 대해, 근대국가 건설을 서두른 정치가나 국어 학자들은 근대어(近代語)로서의 '국어'를 정비함으로써 서양어의 위협에 대항하려고 한 것이다. 언어 학자인 우에다 카즈토시(上田万年)는 內地雜居를 계기로 표준어 제정에 의한 '국어'의 획일화를 가속시켜 갔다. 구미인과의 공존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 환경을 가져온 內地雜居는 그 후의 일본의 '영어' 그리고 '국어'란 언어 정책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 한쪽은 실천적 영어 력을 촉진을, 다른 한쪽은 국어라고 하는 언어 장벽으로 '언어 전쟁'을 대비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학교교육이 선택한 언어정책은 '국어' 교육이었다. 외국어에 의한 교육으로부터 해방되어 더욱 교과목으로서 영어 교육이 모색되었을 때, 다시 설정되어야 할 '영어'는 '국어'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어'는 아직 매우 불안정하고 미숙한 상태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어' 이념과 모순되지 않는 '영어'로서 타이쇼기(大正期)의 영어교육에 정착한 것이 '영문학'이었다. 이 "영어교육=영문학의 수용"이라고 하는 구도를 확립시킨 인물이야 말로 우에다 카즈토시와 같이 '국어'로서의 표준어 정책에 종사한 경험을 가진 영문학자인 오카쿠라 요시자부로(岡倉由三郎)이다.

2) 오카쿠라 요시자부로의 언어 정책

1897년, 도쿄 고등 사범학교의 영어과 겸 국어과 교수인 오카쿠라 요시자부로(岡倉由三郎:1868~1936)는 어학 교수법을 배우기 위한 국비 유학생으로서 영국에 건너갔다. 1905년에 귀국한 오카큐라는 영국에 가기 전에 정력적으로 임하고 있던 국어학으로부터 손을 완전히 떼고, '영문학'의 소개와 '영어 교육' 개발에 전념했다. 메이지 44(1911)년에 발표한 주요 저서『영어교육』의 성공으로 인해 오카쿠라는 영어 교육계의 일인자로 인지되었다. 국어학 출신의 그가 영어 교육에 가져온 것이 왜 '영문학'이었는가? 그리고 영어 교육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했을까?

오카쿠라는『영어교육』에서 우선 "영어교육의 가치"를 실용적 가치(Practical value)와 교육적 가치(Educational value)로 이분법으로 설명한다. 양자는 "실용으로부터 시작하여 수양으로 끝난다"고 하는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오카쿠라는 실용적 가치를 "독서력의 양성"으로 정의하고, "먼저 말하기를, 그 다음에 작문을 영어의 주된 방향"이리고 해석하는 것은 "빗나간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통역사나 기자를 제외하고 일반인은 직접 외국인과 편지, 담화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가 적고, 대부분은 서적의 매개에 의해 신지식·신사상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메이지 후기 일본에서 영어는 "일상에 불필요한 언어"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외국어와의 접촉은 학교 교육에 한정되었다. 즉, 국민에게 보편적인 영어 교육이란 양서를 읽는 독서 능력을 습득하여(실용적 가치), 서적으로부터 얻은 지식, 문화를 통해 인격을 도야(陶冶)하

는 것(교육적 가치) 이었다. 오카쿠라는 독서 능력으로서의 영어의 실용적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영어를 매개로 여러 가지 지식 감정을 섭취하는 것인데 즉, 구미의 신선하고 건전한 사상의 조류를 참작하여 우리 국민의 뇌리를 씻음으로써, 서로의 활동소(活動素)를 기르는 것이다' ".

그러한 오카쿠라가 영어교육의 교재로서 선택한 "구미의 신선하고 건전한 사상"이란 바로 '영문학' 이었다. 야마구치(山口, 2001)에 의하면 젊은 시절의 오카쿠라는 학교 선배이기도 한 국어학자 우에다 카즈토시와 함께 표준어 일원화=사투리 없애기를 통한 '국어' 구축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는 런던 유학 시절에 영어와 일본어 사이의 관계가 예전에 스스로 언급한 표준어와 사투리의 관계와 유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어와 일본어의 경쟁관계와 후자의 압도적인 불리함을 대영제국의 수도에서 공부하던 오카쿠라는 소의 피식민자로서 느낀 것이다. 그래서 오카쿠라는 영어와 일본어를 같은 수준에서 병치하는 것을 그만하고, 영어 대신에 영문학의 도입을 시도하면서 대항 개념으로서 국어를 고안했다. 영어와 일본어의 정치적 투쟁을 영문학과 국어라고 하는, 보다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회피하려고 한 것이다. 따라서 '교실' 에서는 국어를 이용한 영문학의 독해, 즉 외국어 문화의 '수신' 이 이루어지게 된다. 오카쿠라는 "자국어는 '주' (主), 외국어는 종(從)"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영어 교육을 통괄하는 최고 권위에 있는 도쿄 고등 사범의 영어과 주임으로서 오카쿠라의 영어 교육론과 영어 교수법은 그곳에서 배출된 영어 교사와 함께 일본 전국에 침투하여, 영어 교육의 기준이 되었다. 『영어교육』은 1937년에도 다시 증보, 출판될 정도이었다. 이렇게 해서 독서를 통한 지식의 '수신' 이 주목적으로 한 영어 교육이 보급된 결과, "자기의 사상을 발표하는 것, 즉 회화와 작문"이란 '발신' 을 위한 영어는 '여력' 이 있으면 습득하는 부차적인 목표가 되었다.

3) 즈모토 모토사다와 영어 교육

'교실' 의 영어가 구미의 지식 · 문화의 '수신' 중심이 되는 한편, 저널리스트 즈모토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문자 신문을 발행하여 학교와는 다른 '영어' 를 제공했다.

1911년 재팬타임스 사장으로 취임한 즈모토는 같은 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격주간지 『ジャパンタイムズ(재팬타임스) 학생호』, 1912년에 중학생을 위한 월간지 『재팬타임스 소년호』를 창간했다. 이 두 가지 잡지는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시사 영어를 제공한 것이며, "미친 개가 경찰관을 깨물었다(Mad Dog Bites Several)"식의 가십으로부터 "일중관계(Japan and China)" 등의 외교 기사까지 다채로운 내용이 되어 있으며 풍부한 사진을 실음으로써 학생들이 영어와 영어를 통해 세계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환기시켰다. 더욱이 학생호는 어주(語注), 소년호는 어주와 번역이 동시에 게재되어, 권말에는 복습용 단어 표가 게재되는 등, 학습에 적절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소년호의 경우 최고 1만부를 달성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잡지들의 또 다른 큰 특징은 즈모토가 쓴 "영어 시사 회화" 부분과 그가 첨삭을 맡은 "시사 일본어 문장 영역(英訳)" 부분이다. 이들은 많은 호평을 얻었고 연재기사를 수록한 『영어 시사 회화』, 『시사 영문 강의』가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특히 『영어 시사 회화』는 1911년 12월에 제1관, 1912년에 제2관, 1913년에는 제3관이 출판되어, 1914년에는 합본까지 등장할 정도로 판을 거듭했다. 본서에는 졸업 후에 육군 사관 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 '사이토' 와 '곤도' 라고 하는 2명 중학생의 일상회화가 대화형식으로 소개되어, "신해혁명(辛亥革命)"이나 "타이타

닉호의 침몰" 등의 '시사'를 다룬 내용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 되어 있었다. 『영어 시사 회화』의 지면 광고에는 "영어를 배우지만 영어를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이것을 구하라!" 라고 쓰여 있다. 영문 독해 중심의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표현하기 위한 영어를 희망하면서 이 책을 많이 활용했으리라 생각된다. 시인이며 영문학자인 니시와키 준자부로(西脇順三郎)는 '영어 소년'이었던 자신을 뒤돌아 보고 이렇게 회고한다. "영어든 불어든 독일어든 상관이 없으니, 외국어로 생각하거나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늘 바라고 있었다". 재팬타임스 학생호/소년호에는 영문 일기나 편지를 쓰는 방법까지 연재되고 있었다.

이상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영자 신문이란 '읽는' 미디어를 주재한 즈모토는 '말하고' '쓰는' 영어를 중시했다는 점이다. 타이쇼 원년(1912), 재팬타임스 송년호』에 게재된 '영어 교육의 근본도리' 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즈모토는 영어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영어를 배우는 것은 외국인을 맞서서 말 또는 붓을 가지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 세상에서 실제로 무엇이 되겠노라고 마음먹은 청년은, 말하고 쓰는 것을 영어 연구의 목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밑줄은 인용자). 독해 중심의 '교실' 밖에서 즈모토는 오카쿠라가 "실용적 해석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영어"를 중시하여 그것을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은" 영문학만 가르치고 있는 중/고교의 영어교육에 대해 즈모토는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영어교육의 최고 권위자 오코쿠라 요시자부로우가 "실용 영어로부터 수양 영어로"라고 하는 논의를 전개하는 잡지 『영어를 배우는 방법』(1918)에 즈모토가 쓴 영어교육론 "실용 영어를 중심으로 하라"가 수록되어 있다. 이 논고에서 즈모토는 학생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은" 영어 학습에 농락시키는 수험 영어의 비합리성을 바로잡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영어=실용 영어의 교수를 추진한다. 그리고 실용 영어 교육이 지체되는 원인을 중학교과 고등학교의 연속성의 결여, 발음에 능숙하지 못한 교사들의 증가에 있다고 지적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간의 연계를 철저히 하고, "20년도 30년도 전에 졸업하고 현대의 새로운 영어에 따라가지 못한 교원을 척척 해고하고" "새로운 실제적인 교원을 고용한다"고 하는 발본적 인사 개변을 제언했다. 즈모토는 영자 신문의 발행 사업 외에도 중의원 위원을 맡으면서 東京府 中等学校 英語教師の会(도쿄부 중등학교 영어교사의 회) 회장 취임이나 영어 교과서의 집필, 문부성의 고용 교육자 H.퍼머가 주최하는 영어교육 연구소의 회원 등을 통해서 영어교육에 임했다. 그러나 그의 영어교육론은 "학교를 졸업하고 실제 사회에 나가서 영어를 쓰고 대화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실제적 영어"의 획득이란 점에 일관되어 있었다(大村喜吉編, 1980, p.127).

학교교육에 교양으로서의 '영문학'을 정착시킨 오카쿠라가 '국어'란 언어 사상을 안고 있는 것에 대해 실용 영어에 집착한 즈모토는 국민중의 영어 사용자 확대와 국력 증강을 밀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재팬타임스 소년호에는 다음과 같이 광고가 있었다. "영어는 세계를 정복해 가는데, 우리는 영어를 정복해야 한다. 방법과 무기는 모두 이 책에 있다". 즈모토에 있어서 세계어로서의 영어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단지 외국 문화를 수신하기만 하는 소극적인 영어 학습이 아니라, 자기의 의사를 기탄 없이 '발신'하는 적극적인 주체를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타이쇼 15년에 열린 제2회 영어교수 연구 대회에서 즈모토는 "우리는 세계인이 되어 지적 교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영어 교육의 이상을 말한 바 있다.

제2장에서는 즈모토가 '말하'고 '쓰는' 영어를 중시하여 영자 신문의 발행을 통해서 실용 영어교육에 종사한 것을 언급했다. 그런데 이념으로서는 '수신'을 주장한 오카쿠라가 1925년부터 한 10년 동안 라디오의 '영어 강좌'를 담당한 것에 대해 '발신'을 중시한 즈모토가 종이 매체로 교재 제공에 고집한 것은 어떤 의미로는 역설적이다. 다음 장에서는 쇼와 기에 보급하고 있던 라디오가 아니라 대외 선전에 있어서도, 영어 교재에 있어서도 활자 미디어에 머물렀던 즈모토의 '발신형 영어'에 대해 고찰한다.

3. 즈모토 모토사다와 발신형 영어

1)『영문보국(英語報国)』의 사상과 행동

즈모토가 영어 학습에 관해서 외국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중시한 배경에는 그가 국제회의나 영문 잡지를 통해서 일본의 입장에서 영어를 말하고 영문을 써 온 저널리스트로서의 삶의 방법이 자리하고 있다. *Japan Times* 창간부터 그의 한쪽 팔이 되어 즈모토를 도운 영문 기자 바바 쓰네고(馬場恒吾)는 "즈모토 선생님"을 다음가 같이 회상하고 있다. "(즈모토 선생님의-인용자주) 문장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신뢰와 존경의 생각을 갖게 된다. 그것은 선생님이 항상 천하 국가를 염두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단지 영어를 능숙하게 사용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세계를 설득하려는 기백이 있었다. 선생님은 늘 일본을 짊어진다는 마음으로 붓을 드셨다" 라며 즈모토를 회상했다.

"나의 일본 입장의 선전"은 국가에 대한 "봉공(奉公)"이라고 말한 즈모토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대변자의 책임을 다했다. 이미 1906년 서울에서 Seoul Press, 1909년에 뉴욕에서 The Oriental Review라는 정부 계의 일본 발신형 영자 신문· 잡지를 발간한 그는, 만주사변 이후 미국을 대상으로 하여 중국을 적국(敵國)으로 묘사하는 선전에 본격적으로 종사하게 된다. 1931년에는 관동대지진 후에 폐간 된 영문 잡지『Herald of Asia』를 복간하고 일본이 만주에서 얻는 권익의 정당성이나 중국의 배일 감정이 갖는 비합리성 등을 호소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을 전개해 갔다. 또 1932년에는 육군 대신 아라키 사다오(荒木貞夫)와의 공저『Sino-Japanese Entanglements』를, 중일 전쟁이 일어난 1937년에는 영문 팜플렛『China Incident Series』를 발간했다. 이러한 사업은 즈모토를 국책 선전 인으로 불리게 했다. 일본의 대륙 권익을 옹호하고 국가선전에 적극적이었던 즈모토는 과연 편파적인 내셔널리스트이었는가?

시로야마(白山, 2008)는 태평양 문제 조사회(IPR)에서의 즈모토의 발언을 고찰하면서 "즈모토를 단순한 우익적 국가주의자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결론 짓는다. 확실히 즈모토는 조선 통치나 만주 권익을 옹호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당대 일본인의 통념이었으며, 이시바시 단장(石橋湛山) 등을 제외한 국제주의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national이면서 동시에 international인 것을 계속 생각해 온 니토베와 같이 즈모토는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서(東西)는 대등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동서 융화의 정신'을 구미 각국에서 강연했다. 즈모토는 친미적인 발언으로 국수주의자로부터 공격을 받는 일도 자주 있었다. 1930년 캐슬 사건을 둘러싸고 우익 잡지『일요일 석간』으로부터 "비국민 신문의 앞잡이, 외자(外字) 신문의 즈모토 모토사다"라며 실명으로 비판받았고, 같은 해 고향인 톳토리(鳥取)에서 실시한 강연회에서 노기(乃木) 대장의 순사를 비판한 것 역시 우익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게다가 제3회 태평양 문제 조사회 개최를 앞 둔 논문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이 타국으로부터 비판 받기도 하겠지만 감정적

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환영하여" "만약 우리나라가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여론을 견제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또한 태평양 문제 조사회를 뒤돌아 본 즈모토의 논고에서부터는 그의 선전에 대한 사고도 짐작할 수 있다. 즈모토는 중국 대표의 변론을 영어는 능숙하지만 사실 검증이 약하다고 비판하고 "일본인은 학술적이며 중국인은 문학적이다"고 평했다. 영어를 능숙하게 말하고 정서적으로 호소하는 것보다 "의론을 정확한 사실 위에 조립하"는 논리적인 주장이 될 것을 즈모토는 보다 중시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얼마 정도 객관적이었는지는 검증할 여지가 있지만, "학술적"인 변론은 그의 선정 스타일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부터 이토(伊藤)나 시부사와(渋澤)에게 중용되어 구미 국가들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로 일본을 '발신'하는데 노력한 즈모토이지만, 국내에 있어서는 맹목적인 국수주의자와는 일선을 끄는 입장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즈모토가 지향한 "발신을 위한 영어"에 그의 대외적인 선전 활동은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후술하는 영문 잡지 World Digest가 지니는 미디어적 특성으로 즈모토가 이상으로 한 '발신'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2) 1930년대의 국제 교류

그런데 즈모토가 영문 잡지를 통한 선전에 전념한 1930년대의 일본에서는 다시 '영어'를 통한 '발신'에 대한 논의가 고조되고 있었다. 국제적인 고립을 회피하기 위해 공공외교적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1934년에 외무성 및 문부성의 외곽단체로서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 문화 진흥회(国際文化振興会:KBS)는 대외 문화 공작의 중요한 상대국으로 미국을 상정하고, "일본의 문화적 매력"을 영어로 발신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삼고 있었다. 또, 같은 해 설립된 문부성 관할 재단법인 일본 학술 진흥회(日本学術振興会)도 국문학자와 영문학자로 구성된 일본 고전 번역 위원회를 발족시켜서,『万葉集(만엽집)』등을 영어로 번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민간기업 출자에 의한 일・미 학생 회의가 개최된 것도 1934년이다.

민간 활동과 국가 선전이 뒤섞여 전개되어 1930년대의 국제 교류는 그야말로 다양한 활동 주체에 의해 실행되었지만,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된 원동력이 작동하고 있었다. 그것은 영어로 일본을 '발신'하여 "오해된 일본상을 시정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교류는 오로지 "일본의 국제적 입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활동은 문화의 일방적인 수출에만 집중되었다. 즈모토 역시 1930년에 발족한 국제 관광 위원회에 의원으로서 참가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대외적인 일본의 이미지 향상에 진력하고 있었다.

일방통행적인 일본의 '발신'은 국내에서도 유통되고 있었다. 1934년부터 41년까지 전국에 방송된 라디오 프로그램『실용 영어 회화』를 연구한 야마구치(山口, 2001)는 1930년대의 '영어 회화'는 "학습자에게 '세계'를 인식시킴으로써 일본 국내의 차이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Nippon의 발신자로 국민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오해된 일본을 시정한다"는 시대 정신 속에서 라디오 영어 역시 '세계'에 대해 발화하는 것만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타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을 문제삼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영어를 통한 일본의 발신이 가장 필요한 시대에 즈모토가 학생에게 요구한 "세계인으로서 지적 교통을 하기" 위한 '발신' 능력도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재촉하는 일방적인 선전으로 수렴된 것이었을까?

3) World Digest로의 귀결

오해된 일본을 시정하려고 영어를 통한 일본의 발신이 위기감을 가지고 추진된 1930년대 말에 즈모토는 영문 잡지 World Digest를 창간했다. 당시 77세로, 이는 그의 마지막의 잡지 사업이 되었다. “중일전쟁하의 국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발간에 이르렀다는 이 잡지는 부제를 'Young People's English Organ'으로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내용이나 목적, 지면 구성에서『재팬타임스 학생호』와 유사한 것이었다. 하지만 잡지를 둘러싼 시대의 변화를 지면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World Digest에는 루즈벨트나 히틀러 등 ‘지금’을 상징하는 군인이나 정치가들이 표지를 장식하고, Time지, 잡지 The Times 등 영미 미디어로부터 발췌한 내외 정치 기사가 주석 부(付) 영문으로 소개되었다. 히틀러의 자전『Mein Kampf』의 영어 역어 번역이 게재되었고, 매 호마다 편집 후기에서 즈모토가 유럽의 전황(戰況)에 대해 언급했다. 여기서 제공된 ‘영어’란 라디오 영어 회화와 같은 일본을 이야기하는 데에 집중한 텍스트가 아니고, 오히려 해외의 잡지 기사를 소개하는 데 힘을 쓴 것이었다. 언뜻 보기에는 ‘수신’형으로도 보이는 이 영어 미디어는 즈모토가 영어교육의 목적으로 삼아 온 ‘발신’하는 주체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것일까?

이 잡지에서 즈모토가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일본 사회의 ‘양서기근(洋書飢饉)’이다. 즈모토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일본이 해외 정보의 부족으로, 폐쇄적인 사고 공간이 되고 있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우리가 마음 먹고 전진하고 있음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의 세계의 방향을 알”아서 “세계 국가로서의 일본의 모습”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와의 “지적 교류”를 목표로 하는 즈모토에게 ‘발신’은 세계 정세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일본의 본연의 모습을 모색하는 사고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었다. 양서(洋書)의 기근은 사상의 기근이다.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는 이 잡지를 “사상을 위한 음식”이라고 칭찬했다. 'digest'란 말이 소화한다는 뜻과 숙고한다는 뜻을 동시에 갖는 것처럼 “사상의 음식”으로 영양을 섭취하여, 말 그대로 “세계를 소화”함으로써 ‘발신’하는 주체는 강화되어 간다. 즈모토의 말을 인용한다.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겠다는 생각은 상당히 야심 차지만, 세계의 식료로부터 Vitamin A, B, C, D, E를 조정한 메뉴이니, 소화 불량(indigestion)이 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편집자는 믿고 있다.

즈모토가 종이 매체를 통해서 교시(教示)하려고 한 “발신을 위한 영어”란 라디오에서 배우는 일방통행의 “잡담”이 아니고 독서를 전제로 한 숙고형(熟考型)의 ‘의견’이었다. 이러한 즈모토의 관점에서는 ‘말하고’ ‘쓰기’의한 “발신형 영어”가 신문이란 활자 미디어에 의해 습독되는 것이었다는 것도 납득이 간다. 즈모토의 대외 선전과 영어교육에 있어서의 ‘발신’이란 활자 미디어를 규범으로 한 점에서 지극이 친화적이었다.

그렇다면 즈모토의 목적은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가? 1936년 시점에서 중학교 진학율은 심상(尋常) 소학교 졸업생의 11.9%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고등 소학교나 고등 여학교, 실업 학교 등을 포함한 영어 학습자는 전후의 신제(新制) 중학교 영어과목 교육의 전제가 될 정도로 대중화 되었고, ‘영어’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사회계층을 올라가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국민에 있어서 외국인과의 접촉이 비일상적인 것이었다는 실상을 감안하면 영자 신문의 독자에 대해 시사영어가 수험 지식을 제외하고 얼마 정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었는지는 의심스럽다. 영자 신문에 접하는 학생들의 실태는 즈모토의 이상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생각되다. ‘학생호’도 “학업 성적

의 향상"을 강조하고 있었지만 '영어'에 대한 즈모토의 요구는 수험 준비로만 완결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메이지 기의 엘리트이었던 즈모토에게 있어서 '대중'이라는 관점은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그는 자율적 독자를 상정한 활자 미디어에 대한 신뢰를 계속 가졌던 것이 아니었을까? 뉴미디어에 이행하는 것에 무관심이었던 것 역시 즈모토의 하나의 한계이었다.

창간으로부터 일년 남짓 지나, 신문 용지 통제로 인해 World Digest는 폐간되었다. "진심으로 가지고 진행"하는 대미 외교를 통해 전쟁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호소한 즈모토의 희망도 진주만 공격으로 무산됐다. 연구자가 알아 본 범위 내에서 1941년 이후 즈모토의 발언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1943년, 즈모토는 일본의 패전을 알지 못한 체 80년의 생애에 막을 내렸다. 신문 부고는 "영문을 통해서 일본을 소개하는데 큰 실적을 남겼다"고 나와 있었다. '영문보국'은 과연 이룰 수 있었던 것일까?

4. 맺는 말

패전 후 일본은 공전의 영어 붐을 맞이한다. 1950년, 도쿄대학교 교양학부의 조교수로 취임한 'Nitobe boy' 마에다 요이치(前田陽一)는 잡지『어학교육』에서 "외국어의 의의"에 대한 회고와 전망을 제시했다. "새로운 외국어 교육"은 "종래와 같이 단지 외국의 지식을 흡수, 이용만 하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외국과의 상호 이해에 기반을 둔 평화적인 직접 교섭을 통해 진로를 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의 장래를 짊어져야 할 젊은 세대를 교육하는데 있어 쓰거나 말하거나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의 의의가 특히 중시된다"(밑줄은 인용자). 즈모토가 타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7년 후의 "새로운" 외국어 교육은 기이하게도 즈모토가 주장하고 실천해 왔던 것과 같은 영어 교육론이었다. 니토베 이나조 마지막 제자라고 하는 마에다 역시 즈모토를 언급하지는 않았다.『어학교육』의 전신이 된『브레텐』에 즈모토가 관여한 것조차 완전히 망각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전후 즈모토가 연구 대상이 된 적은 거의 없었으며, *Japan Times* 창간이라고 하는 '위업'만이 즈모토 모토사다가 상기되는 유일한 계기이었다.

분명히 전쟁 전의 엘리트인 즈모토의 사상과 행동은 '보국'의 틀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으로, 현대의 논의에 응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영어를 둘러싼 '발신'의 계보를 고찰하는 데에 즈모토를 간과할 수 없다. 즈모토를 재고하는 작업은 '발신'이란 매직워드에서는 잘 안 보이는 일본에서의 대외 선전의 역사를 밝히고, "수신으로부터 발신으로"라고 하는 문제 설정 자체에 수정을 재고하게 할 것이다. 한편으로, 즈모토가 교재로서 제공한 "발신을 위한 영어"가 안이한 일본의 선전이 아니었던 것은 시사적이다. 스즈키(1999)는 학생의 발신 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교재는 모두 일본을 다룬 영문으로 통일하라는 극단적인 제언을 실시하고 있지만, '발신'의 정신은 세계의 파악으로부터 생긴다고 하는, 이제 발신인지 수신인지 라고 하는 이항대립을 초월한 즈모토의 견해를 더 유의하고 싶다.

본고에서는 '발신'을 둘러싼 즈모토의 사상, 그리고 미디어의 특칭에 주목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즈모토의 사상에 대해서는 보다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미디어의 수용방식에 대해서도 더욱 실증적인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다. 여기서는 "수신으로부터 발신으로"의 역사관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로서 즈모토 모토사다에 있어서 발신형 영어의 궤적을 여기에 기술했다.